

함글함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69

2016. 10.9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
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1-2)

오늘의 주요기사

- 2 총회소식, 식당배식동선 조정
- 3 성경바로읽기
- 4 교사힐링데이
- 5 젊은이 10교구의 원데이캠프
- 6 한글과 성경
- 7 목회칼럼
- 8 아기나들이

교회 일정

- 10/9(주일) 2차 항존직 선거
10/12(수) 3/4분기 제직회
10/16(주일) 추수감사주일
10/18(화) 평양남노회
10/22(토) 바자회(통일선교)
10/23(주일) 세례입교식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글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 9월 9일 저녁 대예배실에서
는 하반기 전교인기도회가 열렸
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른 명
절을 지냈던 터라 하반기 겨자씨모
임의 시작이 다소 늦어졌으나 전교
인 기도회를 계기로 경건한 마음을
새로이 하였다. 약 320명의 성도들
이 이 나라와 교회, 주신 사명과 어
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한 중
보로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10월
부터는 교구별 기도회가 다시 이어
진다. 어린이교육목회원에서는 10
월 9일부터 4주간 주일 오후 2시~4
시에 3층 소년부실에서 어린이 부
모 기도회 '체인지(CHANGE)'를 연
다. 어린 아기부터 초등학생 자녀
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부모로 굳건히

서고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
도의 자리를 갖는다. 5층 중보기도
실에는 교회 중보기도자들의 기도
가 한 주 내내 쉬지 않고 이어진다.
중보기도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나
와서 요청된 기도들은 물론이고 우
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를 위해
기도한다. 매월 넷째 주 오후 1시 30
분 제3집회실에서 해외선교팀 주
관으로 파송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
한 기도회가 열린다. 누구나 와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시설 안에 위치하고 있
어 출입이 다소 제한적인 환경이기
는 하지만 주님의교회에는 크고 작
은 기도 모임들이 열리고 있다. 교
회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위
해서 4층과 5층 계단방을 기도 장

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가을에게는 기도하게 해달라는
시인의 노래가 떠오르는 계절이 돌
아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
에 상관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네 삶의 욕망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좋은 기
회와 더 많은 성공을 구하는 기도
는 접어두자. 염려하며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기도는 구태여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단단하
게 맞잡아 모은 두 손으로 흠어졌
던 마음을 한데로 그러모아 하나님
께 충성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10월이 되기를 소망
한다.

함글함글

교단소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주님의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기관지인 기독교보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안산제일교회에서 서울동노회를 제외한 65개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총회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다

시 거룩한 교회로'를 주제로 교단의 정책을 수립하고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회 2일째에는 일정에 없던 순서로 증경총회장을 대표해 림인식 목사가 "우리는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세속적인 금권과 교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회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증경

총회장인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을 금할 수 없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공감하여 4일째에는 총회장과 총대의 이름으로 죄책고백을 담은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발표되었다. 총회 동안에는 제100회기에 개정된 총회 헌법 교리편이 제101회 총회에 보고된 후, 시행에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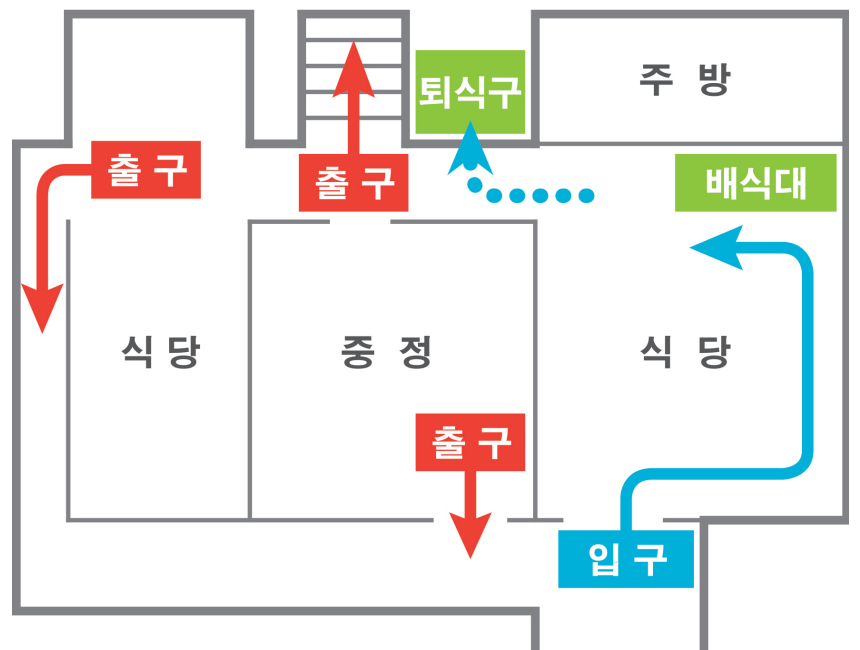
어갔고, 총회순직자 3명을 지정하는 일도 이루어졌다. 총회가 열리기 전에 발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단특별사면이 총회 총대들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이 밖에 총회 현장에는 노아의 방주와 거기로 들어가는 1500마리의 동물들의 행렬을 형상화한 '노아의 방주와 십자가 전시회'가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함줄함울**

교회소식

식당 배식동선 조정

지하 식당이 주방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을 하면서 배식과 퇴식 동선이 정비되었다. 그동안 주일마다 협소한 식당 공간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동선이 얹혀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공사로 퇴식구 위치를 변경하여 동선을 정리를 하게 되었다. 입구는 기존에 이용하던 주출입구를 입구 전용으로 이용하되, 그동안 유리문 바로 안쪽에 서던 배식줄을 안쪽 벽을 따라 서도록 바꾸었다. 기존의 주출입구를 입구 전용으로 바꾸는 대신 중정마당 방향, 제2식당(작은 식당) 방향과 퇴식구 바로 옆의 계단은 전용 출구으로 이용하여 일방통행하도록 하였다. 2주간 시행 결과 기존 방식으로 알던 사람들의 착오와 바뀐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지만

서로 부딪치는 일이 많이 줄어 더 편리해졌다는 의견이다. 설비가 새로 들어오고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던 주방의 경우 작업공간의 변화로 아직은 불편함이 있지만, 국수를 삶는 등의 위험한 조리과정을 담당하는 주방팀 봉사자의 동선과 매주 바뀌는 겨자씨 봉사자가 담당하는 설거지 구역이 분리되어 안전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자동식기세척기로 인해 그릇 양이 많은 3부 설거지 봉사자들은 크게 만족하였다고 한다. 주방팀에서는 전체 공간 사용과 기본 환경공사가 맞물려 진행되면서 새로 정비된 시스템이 더 불편한 파트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불편과 복잡함, 위험 환경의 개선효과는 매우 높다고 평가한다. 더불어 주일에 교회 식당을 이용하는 성도들은



출구와 입구의 위치를 구별하여 이용하고,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제대로 사용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배

식 시간이 8시30분에서 오후1시30분까지로 조정되었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93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菖蒲(창포. acorus calamus var)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출애굽기 30장 23-25절)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창포는 천남성과의 다년초이다. 根

莖(근경)은 옆으로 길게 자라며 육질이 두껍고 마디가 많으며 백색이거나 연한 홍색이며 지상부와 더불어 독특한 향기가 난다. 중앙 상부한 쪽에 1개의 肉穗花序(육수화서)가 달린다. 단오 때에 창포를 넣어 끓인 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기도 한다. 근경은 방향성 健胃劑(건위제)로 사용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菖(창포 창. 부들 창) : 풀을 대표하는 艸(풀 초)의 변형체 艹(초두머리)에 왕성함과 나타남과 빛남을 뜻하는 昌(창성할 창)을 합쳐【풀 중에

서 왕성한 향기를 내는 종류가 창포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蒲(창포 포. 부들 포) : 풀을 대표하는 艸(풀 초)의 변형체 艹(초두머리)에 갯벌이나 습지. 연못을 뜻하는 浦(개 포. 물가 포)를 결합시켜【풀 중에서 갯벌에 잘 자라는 종류가 창포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浦(개 포. 물가 포) : 水(물 수)의 변형체 氵(삼수 변)과 크고 넓은 뜻이 있는 甫(클 보)를 합쳐【밀물과 썰물이 크게 움직이며 들락거리는 곳이 갯벌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36



주일에 교우들의 갑작스런 사고에 지하 의무실에서 상처난 부위에 소독을하며 붕대를 감아주며 응급조치를 해주는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영화로 성경 바로 읽기 | 셸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을 통해서 ④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

첫 번째 글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글에서 은유란 무엇이며 성경의 뿌리-은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글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모든 비유의 근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나라’와 ‘통치’라는 군주적이고 위계적인 은유의 관습적인 이해를 새롭게 정의하는데,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사회적인 관행에 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령을 위협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와 관행에 민감하여야 하고, 예수님처럼 긴장해야 하며, 실천적으로 이 세속적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은 그 실천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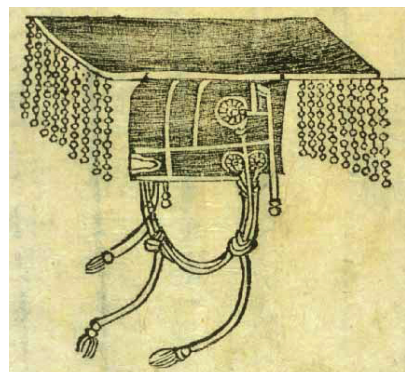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신에 공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은유로 읽지 않고 즉자적이며 1차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절대로 옳다’는 ‘성경 절대주의’가 한국의 기독교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갖고 있는 자의성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몇 천 년의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여러 언어로 기록되었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던 것임을 이해한다면, 무엇보다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믿음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기원전 15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약 40년부터 1세기 사이에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전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문단 구분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장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205년 영국의 대주교가 된 스티브 랑톤이었으며, 절을 구분한 것은 16세기에 와서입니다. 1551년 제네바에서 편찬된 그리스어 신약성경에서 장과 절 구분이 최초로 채택되었으며, 1560년에 장과 절 구분이 된 최초의 영어판 성경전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한국어 판 개역성경의 장과 절 구분은 라틴어 성경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문



가시관과 면류관



화권에 근거를 둔 어휘와 문장이 또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는 번역자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상징적 어휘가 사용되고, 다양한 이본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된 어휘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맥락과 의미는 사라지고 상징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면류관(冕旒冠)’을 들 수 있습니다. 개역한글판에서는 56곳, 개역개정판에서는 24곳, 공동번역에서는 19곳에서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마태복음 27:29)라는 문장에 해당하는 영어본 킹제임스판의 원어는 “a crown of thorns”이며, 개역개정판에서는 “가시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한국어로 번역할 당시, 그리스어 ‘στέφανος’, 라틴어 ‘coronam’, 또는 영어 ‘crown’을 가장 화려한 황제의 관인 ‘면류관’으로 번역했을 것입니다. 면류관은 중국과 한국에서 황제나 임금이 가장 정중한 예식에 입는 대례복인 면복에 갖추는 관입니다. 앞뒤에 옥과 장식이 달린 주렴이 달려 있으며 황제는 12줄, 왕은 9줄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원래의 ‘면류관’의 모양으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면류관’도 본래의 의미는 증발되고 ‘상징’만 남은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글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문장과 은유 속에 숨어 있는 맥락,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읽으려 노력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함글함글

겨자씨

아름다운 동행

겨자씨 6-8구역(주안에서)에서는 10월2일 강원도 고성에 있는 마달교회를 방문하여 특별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의 행사를 가졌다. 마달교회는 교인 약20명, 인근부대 사병 약25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시골교회로 인근 포병부대의 군인교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6-8구역 겨자씨들은 사병들의 특송에 이어 특별찬양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식사를 하며 교인, 사병들과 교제를 나눴다. 개별적으로 준비해간 가방, 텀버러, 현금 그리고 군인들을 위한 햄버거를 전달하였다. 교회방문 후 통일전망대를 방문하여 북한 선교에 대한 답소도 나누었다. 6-8

구역은 지난 상반기에는 서울 신길동에 있는 삼성교회(시각장애인교회)를 방문하여 특별찬양을 드리고 함께 식사하며 시각장애인을 섬기는 분들을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는 등 지난 수년간 교회방문, 기도원방문, 봉사활동 등을 함께하는 섬김의 활동과 겨자씨 모임 때에도 부부학, 천로역정, 기타 신앙서적을 함께 공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인도자는 2년씩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겨자씨 담당 목회자의 인도 속에 겨자씨모임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회방문, 봉사활동, 기도원방문, 성경공부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함글함글



교육목회원

교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 교사 힐링데이



2016년 교사힐링데이가 9월18일 주일 오후1시 30분, 다목적교육관 5층에서 진행되었다. <교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힐링데이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우리를 향한 주

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시간으로 준비되었다.

한국교회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 그래서 늘 교사가 부족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섬기는 교사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이번 힐링데이에서는 10년 이상 교사로 섬긴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랍게도 20년 넘게 교사로 섬겨온 분들도 있었다.

함께함의 감사를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교육목회원 교역자들이 두 가지 특순을 준비하였다. 네 명의 교역자들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를 기타연주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함의 기쁨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표현한 'God is God'공연에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될 때 감탄이 터져 나왔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 교사이야기는 햇살뜨락 초등1부 임광희 선생님과 팝콘트리 중등부 김현주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들과 직접 호흡하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 수 있었고 교사로서의 섬김을 통해 선생님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잔잔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2016년 교사힐링데이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헌신하는 기쁨이 가득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롭게 교사로서 세워지는 은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 그리고 혼자 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를 주신 은혜...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했기에 감사드립니다.

전보영 목사

교회소식

2016년 항존직 선거

교회의 미래를 위한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정신여고 본관 1층에서 10월 2일 1차 투표, 9일 2차 투표를 실시된다. 올해 선출 인원은 장로 10인, 안수집사 20인, 권사 20인으로 1~2

년 내에 임기를 마칠 예정인 항존직의 수가 많아서 투표권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최종 선거 결과는 12일 수요일예배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함줄함울



늘푸른대학

어르신들 가을 나들이

10월 4일 늘푸른대학팀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늘공원에 가을나들이를 다녀왔다. 폭염주의보를 알리는 재난문자가 스마트폰에 오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날씨가 되어 가을이 왔음이 실감이 난다. 비가 온 뒤 눈이 부시도록 파란하늘에 점점이 떠가는 뭉게구름이 더욱 아름다운 가을하늘이다. 살랑이는 가을바람, 뽕얇

게 피어오른 갈대밭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 우리들만의 고운자태를 만들어 보며 아름다운 향기를 그곳에 사뿐히 내려놓고 왔다. 함께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모두 195분이 역새와 맑은 하늘과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가을 나들이 열어주심 감사하며 봉사자 한분 한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함줄함울



교구소식

젊은이 10교구 원데이 캠프

지난 10월 2일(주일) 주님의교회에서 젊은이 10교구 원데이 캠프가 있었다. 예전의 2030부부교구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올해부터 젊은이 10교구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다. 10교구의 구성원들은 20~30대의 부부가 주를 이루며 35세 이상의 싱글도 포함된다.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일겨자씨모임으로 활동하는 가족들 90여명이 오후2시부터 8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담당하며 지쳐있는 젊은 부부들이 쉼과 활력을 얻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즐거운 놀이와 교제권을 형성시켜 주는 데 행사의 주안점을 두었다. 행사를 위해 프로젝트 찬양팀이 조직되어 아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시간을 가졌고, 레크레이션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는 순서도 있었다. 이제

껏 다른 겨자씨와 교류하지 못한 부분은 가족별 소개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다. '어떻게 칭찬할까? 어떻게 화낼까?'라는 제목으로 두란노 어머니학교 강미영 강사의 강의를 통해 자녀교육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 교구목사 부부와의 만남의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젊은 부부로서의 잘 사는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함께 다짐하였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통해 가정끼리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육의 배를 채웠다.

이번 원데이 캠프는 젊은이 10교구에 큰 의미를 지닌다. 2014년 봄에 겨자씨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은 아이를 포함해서 평균 60여명 정도였는데, 다양한 방법과 목회적 전략으로 겨자씨 참석 인원이 2015년 상반기에는

110명, 2016년 상반기에는 140여명으로 늘어났다. 매주일 평균 출석하는 인원이다. 2년 9개월 동안 겨자씨 살리기에 모든 초점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전체 행사를 겨자씨원들이 요구할 정도로 겨자씨가 안정되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가 큰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 행사가 목회자가 미리 년 초에 계획해서 진행한 행사가 아니라란 점이다. 여름 즈음에 10-6 절대 동안 겨자씨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제안해왔다. 뿐만 아니라 기획한 것을 진행하는 것도 한 겨자씨에서 모두 감당했다. 목회자는 홍보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인원을 모으고, 예산을 지원할 뿐, 다른 모든 일들이 한 겨자씨를 통해 진행되었다. 말하자면 이번 행사는 한 겨자씨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 10교구 행사로 발전된

형태다. 성도들이 주도하고, 목회자는 거들었을 뿐이다.

겨자씨가 사니, 자발성과 헌신도가 살아나고 결국은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다. 그 섬김이 다른 겨자씨에게로 흘러 들어가 교구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되었다. 10-6 절대 동안 겨자씨원들은 이번 행사에 모두 스텝으로 헌신하면서 강의도 못듣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모든 식사를 만들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섬김으로 인해 다른 교구원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닮은 헌신이 젊은이 10교구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진정한 하나님나라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젊은이 10교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문희삼 목사



한글날 특집

한글과 성경 이야기

한글날의 역사

10월 9일은 한글날. 1446년 한글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이다. 한글날을 처음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중이었던 1926년이었는데, 당시에는 <훈민정음>이 9월에 반포되었다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따라 9월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29일에 기념식을 올렸다. 1931년부터는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로 고쳤고, 1934년부터는 환산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바꾸어 10월 28일에 기념식을 올렸다.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제자 원리와 함께 반포일이 9월 상순임을 알게 되어, 해방 후인 1945년에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했다. 1991년에 공휴일 축소 정책에 따라 공휴일에서 해제되었으나 2013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국절이 있기도 했다.

한글 창제의 뜻과 성경

글자는 말과 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50년 금속활자를 만들어 처음 인쇄한 책이 성경이었다. 그전까지 필사로만 전해져서 성직자 외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성경이 인쇄를 통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훈민정음>에 수록된 서문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쓰기 어려우므로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새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세종대왕의 뜻이 밝혀져 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한글은 큰 역할을 했다.

한글과 교회

이미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었으나,

당시의 절대 강국 중국과 한문 고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당시 조선에서 한글은 여자나 하층민이 사용하는 문자였다. 사농공상의 직업윤리와 유교 문화를 기본으로 한 가부장적 사회 질서 가운데 한글은 익히기 쉽다는 이유로 오히려 천대를 받았던 셈이다. 그러나 익히기 쉬우며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읽으면 그대로 이해되는 한글이 더 좋은 글이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한 것은 교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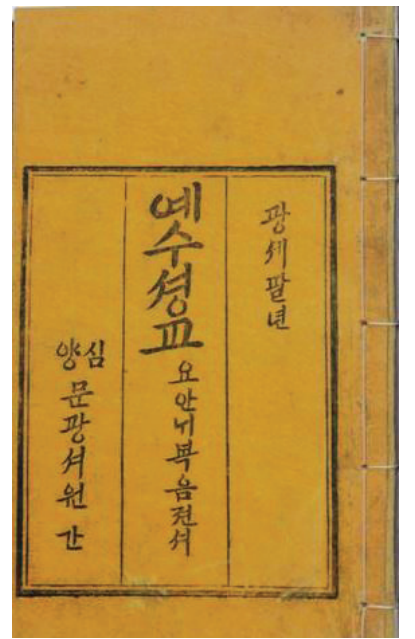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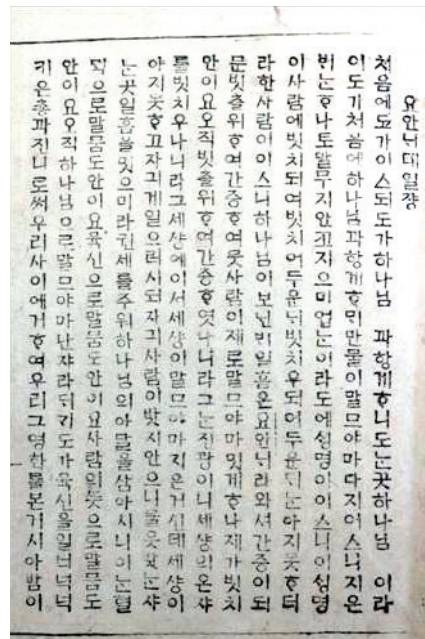
춘원 이광수의 생각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예수교회이다. 귀중한 친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되며,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아마 조선 글과 조선 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은 그릇이 됨은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친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외다.”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였던 이광수는 1919년 발표한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글에서 ‘한글’의 가치와 성경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글 성경이 보급된 데 대한 감동을 드러냈다. 기독교가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이 땅에 전파된 데에는 누구라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한글 성경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성경의 역사

최초의 한글로 번역된 성서는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John Ross)는 만주와 중국에서 활동하며 중국어를 배웠고, 그곳에서 한국인을 만나 다시 한국어를 습득했다. 그는 중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한글 성경책

국에 있던 서북 출신 한국인들이 함께 번역했다. 그가 누가복음 번역본은 내면서부터 ‘God’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이 현재까지 이른다. 1887년에 출간된 <예수성교전서>는 최초의 한글로 된 신약성경이었다. 1911년에는 구약성경도 번역이 완료되어 <성경전서>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 성경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서북 지역 방언을 썼던 까닭에, 성경 속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북 방언을 쓰고 있었고 오류도 적지 않아 새로 번역된 성경이 1938년 완성된 <성경개역>이다. ‘개역(改譯)’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기존의 번역을 개정했다는 뜻이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 1961)은 <성경개역>을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개정한 수정판으로, 이후 1998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사용되었다. 이 판은 바뀐 한글맞춤법과 표기를 통일하고, 번역의 어색한 부분을 다듬으며, 되도록 현대어를 반영하여 젊은

이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현재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다.

공동번역과 다른 번역판들

성경이 애초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이후 라틴어, 독일어, 영어 등으로 번역되면서 많은 이본을 낳았듯, 한국어 번역본에도 많은 이본이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던 <공동번역성서>(1977), 현대어로 옮긴 <현대인의 성경>(1986)과 <현대어 성경>(1992), 개역과 달리 처음부터 새로 번역한 <표준새번역>(1993), 영어판의 고전인 <킹제임스성경>을 옮긴 <한글킹제임스성경>(1994) 등 저본이 다르거나, 독자를 고려해서 현대어 적용을 달리 했거나, 직역과 의역의 수준을 달리 한 많은 번역본이 발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차이일 터,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문자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함줄함줄**

교회소식

교회 재정, 회계 교육

9월 25일 소예배실에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 사역부서의 팀장과 회계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과 회계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우리 교회 재정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

한 설명과 함께 2016년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실제로 담당자들이 출납과 집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사례와 예시도 제공되었다. 2017년 예산편성 기본방향

은 첫째, 교회사역의 5가지 기본인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에 충실하며 둘째,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대내, 대외 지출 50:50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미흡한

현재 총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과 사역부서별 노력이 요구된다. 각 부서는 10월 31일까지 예산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함줄함줄

목회칼럼

겨자씨 모임, 누림보다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귄은 섬김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퍼의 신도의 공동 생활의 한 구절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사귄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사귄이 만들어 내는 모든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겨자씨의 목적 또한 누림보다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림과 섬김

내가 속한 겨자씨를 누림으로 다가가느냐, 섬김으로 다가가느냐는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누림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겨자씨는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갖고, 좋은 겨자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겨자씨를 섬김으로 다가가면 전혀 다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겨자씨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겨자씨가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많은 겨자씨일수록 좋은 겨자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관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특별한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누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림과 섬김을 꼭 분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림만이 중요하고, 최우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본질은 누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본회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가족공동체처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사귄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의 선택이 강요되는 세상에서 그냥 주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왠지 바보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체,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선택하면 그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 속에서 어느새 섬김이 사라져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어떤 겨자씨이든, 그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섬김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잃

게 되고, 그냥 받아들일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역설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섬김 속에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본질

교회공동체 안에서, 겨자씨 안에서 누림보다 섬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 열정을 누군가를 위해 섬기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짝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섬김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누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김입니다. 주님의 교회 겨자씨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이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 되길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겨자씨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겨자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장수현 목사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35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14)

로즈(Harry A.Rhodes)의 1933년 무렵 미북장로회 한국선교회사(발췌)



1933년 12월 서울에서 미북장로회 한국선교회 교육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는 현재 미북장로회 선교부가 재정위기에 직면해있어 미북장

로회 선교부와 한국선교회의 소수의 선교사들은 중등학교 수를 줄이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선교회가 큰 곤란에 빠지고 많은 사역들이 학교와 연계되어 있어 사역이 큰 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그래서 삭감한 충당금을 한국인들이 재정지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어떤 학교도 폐교시키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서울의 여학교(정신여학교)는 우리 선교회 내의 여학교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여학교이다. 거의 50년을 지내오는 동안 3천명의 여학생들을

교육시켰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 가정에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힘 있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공황이 계속되면서 모든 주장들이, 선한 주장까지도 그쳐지게 되었다. 과거에 유용하였고 앞으로도 필요하며, 수많은 희생적인 삶의 헌신과 기금이 투여되었던,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수많은 거룩한 기억들과 전통들을 쌓았던 기관들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20년간의 노력해오고 있음에도 강제로 문을 닫는 지경에 처해있다

이희천 정신여학교 교장

아기나들이



김태인 아기

2016년 6월 10일생

- 1.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길
- 2.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는 선한 사람이 되길
- 3.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아빠 김세화 / 엄마 표성은, 2016년 9월 11일 3부 예배



박민하 아기

2016년 6월 30일생

- 1.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2.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 3.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군세에 살아가는 지혜를 주소서.

아빠 박주영 / 엄마 최수민, 2016년 9월 18일 4부 예배



박찬웅 아기

2016년 5월 11일생

- 1.찬웅이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함을 기도합니다.
- 2.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수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3.늘 주변 사람에게 행복과 사랑을 받음과 더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아빠 박현준 / 엄마 이수정, 2016년 9월 11일 3부 예배



이윤서 아기

2016년 6월 8일생

- 1.윤서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같은 아이로 자라나도록 돌봐주세요
- 2.저희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나아갈수있도록 이끌어주세요
- 3.저희 가족 모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켜봐주세요

아빠 이지훈 / 엄마 조민지, 2016년 9월 25일 3부 예배



황 윤 아기

2016년 7월 18일생

- 1.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기를
- 2.하나님의함께하심으로 축복의통로가되어윤이 까닭에 주변사람들이하나님의은혜를입기를
- 3.윤이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있기를, 윤이도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될수있기를

아빠 황재영 / 엄마 김 미, 2016년 9월 25일 3부 예배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2016 통일선교 바자회

하나님의 나라, 통일 장마당!

일시 : 10. 22(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정신여중고 내

주관 : 주님의교회 통일선교위원회

협력 : 권사회, 안수집사회, 여전도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 교구 겨자씨

▶기증 물품 종류

의류 : 여성, 남성 의류, 아동복, 유아복 등(가능한 새 것같이 깨끗한 옷을 부탁드립니다.)

잡화류 : 가방, 모자, 스카프, 악세사리, 벨트, 신발, 장갑, 양말 등

생필품 및 주방용품 : 그릇, 식기, 거실용품, 욕실용품 각종생활도구 등

스포츠 및 레저 용품 / 전자제품 및 운동기구 / 아동도서 및 완구류

기타 판매가 가능한 물품 : 명절 추석선물세트도 가능

▶2016 통일선교 바자회 물품 접수 : 오늘(10/9) 오전 8:30~오후2:30

장소 : 교회 1층 앞마당

문의 : 구태호 집사(010.3203.1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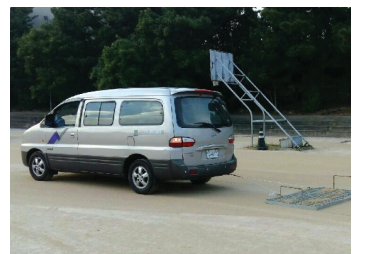
*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통일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교회단신

운동장 평탄 정지작업 매 주일 실시

정신학원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 운동장 정지작업용 그레이팅을 구입하여 매주일 16시부터 19시까지 주님의교회 3명의 직원들이 주일 주차로 훼손된 운동장 평탄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줄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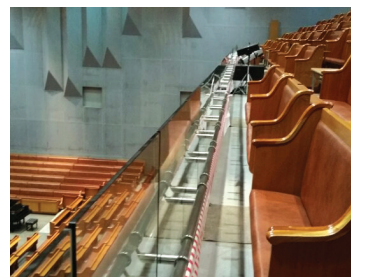


교회단신

대예배실 3층 난간 공사

대예배실 3층 전면부 난간을 높이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 난간은 높이가 충분히 높지 않아 예배나 행사를 진행할 때 안전상 불안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높이 1.2m 투명유리로 교체하여 설치하였다.

함줄함울



알립니다

1.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10.16)은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

2.2016 공동의회 항존직 1차 투표결과

* 장로 피택자: 없음

* 안수집사 피택자(10명)

김용철 한재희 고광중 송수학 이성규 김영화 강대수 박종욱 최봉수 박남현

* 권사 피택자(12명)

배정선 소봉순 서옥숙 강기선 설정희 김애리 김영주 전영오 정란희 유경희 이혜성 최성이

3.2016 공동의회 항존직 선거(2차)

일시: 오늘(10/9) 오전8:30~오후3:30

장소: 정신여고 본관1층

선출인원: 장로(10명), 안수집사(10명), 권사(8명)

▶선출인원까지 기표 가능

투표권자: 등록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세례,입교인(선거시행공고 6/26일 기준)

4.교구별 금요기도회: 10/14(금) 오후 8:00

* 4교구(3층 소년부실) * 6교구(1층 제3집회실) * 8교구(3층 초등부실)

5.예수친구사역 국내 성지순례

일시: 10/14(금) 오전 8:30 ~15(토) 오후 6:00

출발 장소: 제3집회실(1층)

문의: 박주영 전도사(010.3347.0390)

6.3/4분기 제직회: 10/12(수) 수요일예배 후 대예배실